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F 063.212.9888

2026년 11월 6일(금) 제 3432호

道, 수억 혈세 메가어스 관리·감독 '모르쇠'

경쟁입찰 없이 단일 주관사 독점
매년 수억 투입 사후 검증은 '제로'
수출 성과·예산 집행 검증도 전무
실효성 낮은 MOU만 양산

(8)스타트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마련된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가 당초 목적과 달리 현장 운영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혈세 낭비와 기관 관계자 외유성 접대 의혹, 특정 업체 독식 논란 등의 각종 문제점을 20차례 집중 보도한다.

/편집자 주

전북 지역 공공기관들이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MEGA-US EXPO)'에 매년 수억 원의 국·도비를 쏟아붓고 있으나, 특정 민간 주관사가 행사 권한을 독점한 채 구속력 없는 업무협약(MOU)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예산을 대주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창업지원과는 산하기관들의 집행 실태나 실질 수출 계약 여부를 검증하는 사후 점검조차 하지 않아 혈세만 태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메가어스 엑스포 관련 계약 문건과 산하기관 정산 자료를 종합하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 도내 주요 창업 지원 기관들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메가어스 엑스포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들 기관이 집행한 참가 지원금은 경쟁 입찰이나 복수 견적 비교 없이 예외 없이 단일 주관사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 업체가 도내 모든 유관기관의 사업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행사의 기형적인 추진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공공기관이 해외 박람회 대행 용역을 발주할 때는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메가어스 엑스포는 해당 주관사가 베트남 현지 기관과 단독 협약을 맺어 박람회 간판을 먼저 걸어놓고 국내 공공기관들이 '개별 기업 부스 참가비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태우는 이례적인 역구조로 설계됐다.

실제 주관사가 참가 기업들과 맺은 참가 신청 계약서 제1조는 '주최자'의 정의를 한국 공식 대행사로 명시해 해당 주관사를 단독 창구로 못 박았다.

주관사가 행사장 대관과 부스 배정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각 기관은 '단독 수행 업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5년 연속 수의계약을 맺거나 기업 계좌를 경유해 참가비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적 입찰 의무를 비켜갔다.

이 같은 독점 구조 속에서 매년 막대한 국·도비가 투입됐지만, 실질적인 수출 성과는 초라한 수준이다.

각 기관은 해마다 수십 건에서 백여 건의 현지 MOU를 체결했다고 앞다퉈 홍보해 왔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구매의향서 수준에 불과해 실제 수출로 이어지는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

실제 전북대 창업지원단의 최근 5개년 결과보고서를 보면 매년 수십 건의 MOU가 체결됐으나 실제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다 1~4건에 그쳤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역시 현장 협약과 향후 가능성만 기재했을 뿐, 박람회 종료 이후 실제 대금이 입금된 사후 확정 실적은 파악하지도 못해 강한 의혹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비를 교부하고 산하기관을 관리·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사실상 손을 놓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짬짜미'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는 산하기관들이 예산을 쪼개어 메가어스 엑스포에 투입해 왔음에도 전체 예산 규모나 독점 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한 적이 없다.

특히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는지 추적 관리하는 사후 검증 시스템조차 갖추지 않아 혈세 낭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진상 조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고정삼 부지사는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만큼 후속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참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지 운영 시스템 등 제기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도, 재난안전 우려시설 점검 강화

전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이 5일 열린 하반기 운영회의에서 재난안전 우려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 고향사랑기부로 대표도서관 서가 채운다

道, 문체부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지정기부 사업·답례품 등 안내
'내 고향 서가 채우기' 모금 진행

전북도는 5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전북형 지정기부 사업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에 2028년 개관 예정인 전북대표도서관의 도서 구입을 지원하는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사업을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1층에 홍보 공간을 마련하고 ▲전북형 지정기부 사업 ▲온라인 기부 방법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 등을 안내했다. 전북의 대표 답례품을 전시하고, 볶은 서리태와 치즈, 떡 등의 시식 행사와 현장 기부 이벤트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모금을 시작한 '내 고향 서가 채우기' 사업을 집중 홍보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립 중인 전북대표도서관에 비치할 도서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하는 사업으로, 모금 목표액은 5,000만 원이다. 도는 기부자들이 도서관의 자료 확충에 참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문화 나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내 고향 서가 채우기'를 비롯해 ▲가정위탁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 ▲장애·고령 보훈대상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전북형 지정기부 사업의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모금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민희 전북특별자치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방문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전북대표도서관의 서가를 채우는 사업의 취지를 직접 알리는 자리"라며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전북의 지식·문화 기반을 넓히고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재난안전 우려시설 30곳 정밀점검

전북도는 5일 건축·토목 등 9개 분야 전문가와 14개 시·군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 우려시설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에서 점검을 요청한 재난안전 우려시설 30개소(건축물 24개소, 시설물 6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별 위험요인 해소와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시설별 위험 요인과 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지난해 점검 시설 30개소에 대한 후속 조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점검한 시설 가운데 11개소는 보수·보강을 완료했으며, 9개소는 현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10개소도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보수·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11대 전북특별자치도 안전관리자문단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환경·식품위생·보건안전·소방 등 9개 분야의 대학교수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자문단은 시·군이 점검을 요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정밀안전점검 일정을 앞당겨 1~2월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3~7월 점검 후 8월 하반기 운영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군이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보수·보강 예산에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점검이 실질적인 보수·보강으로 이어져야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설별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놓고 예산심사 충돌

기금 104조원 여유자금 적립 '도마'
국힘 "빚내 여유자금 적립 부적절"
민주 "성장 기반 마련 투자 불가피"
국회예산정책처도 효율성 지적

여야는 2027년도 국회 예산 심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제출한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내년 예산 최대 쟁점이 됐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국채를 발행해 기금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투자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예산통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5일 열린 국회예산결산심사위원회의에서 "총지출 규모가 1년 만에 다시 8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재정을 너무 빨리 파먹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많다"며 정부 예산안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채를 발행해 빚을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한쪽에 쌓아 놓겠다는 얘기"라며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빚을 내고 한쪽에는 100조 원 넘게 여유자금 쌓아 놓겠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자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금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비판적으로 볼 때는 쌈짓돈 만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2면에서 계속>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전북도, 매출 1000억 스타기업 100개 키운다

전북형 스타기업 육성 간담회 개최
2027년부터 4년간 도비 500억 투입
성장사다리 4단계서 6단계 개편
성장 전환기 '디딤' 'Pre-스타' 신설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5일 익산시 소재 ㈜팜조아에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대표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형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주재한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기업인 10명, 기업성장 분야 전문가 2명,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과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은 진흥주물, 에너지엔, 비나텍, 씨앤씨어패럴, 한우물, 아이버스, 팜조아, 정석케미칼, 디와이, 부성테크 등 10개사로, 제조업과 식품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장 경험과 향후 사업 확대 계획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2027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고도화 방안 ▲성장단계별 지원사업 ▲기업별 성장전략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신규 시장 진출 등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도는 이날 기존 4단계 성장사다리를 '돋움·디딤·도약·선도·Pre-스타·스타'의 6단계로 확대하는 고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성장단계별 지원 공백을 줄이고,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원 수요에 맞춘 육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전환기 기업을 위한 '디딤기업'과 매출 1,000억 원 이상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Pre-스타기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출 1,000억 원 이상 스타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2027년부터 4년간 도비 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업별 밀착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 제도도 도입한다. 도는 성장사다리 지정·졸업기업 523개사를 대상으로 전담 PM(Project Manager)을 배치해 성장현황을 관리하고, 기업별 지원사업을 연계할 방침이다.

Pre-스타기업에는 전담 PD(Project Director)를 1대1로 매칭해 기업진단부터 성장과제 발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성과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道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결속 다져…한마음대회 개최

고창서 어업인 등 300여 명 참석
수산자원 관리·보호 유공자 표창
폐어구 수거·종자 방류 등 성과 공유



<사진=전북도>

전북도는 5일 고창군 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회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전북자치도 자율관리어업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고정삼 전북특별자치도 피지컬AI경제부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주요 내빈과 어업인들이 참석해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와 고창군지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어울림 한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와 수산자원 관리·보호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해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활동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2001년 7개 공동체로 시작해 현재 58개 공동체, 약 3,700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각 공동체는 수산종자 방류와 폐어구 수거, 해적생물 구제 등 수산자원 회복과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 간 협력을 통해 어촌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고정삼 전북자치도 피지컬AI경제부지사는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변동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역량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신천지 집단입당 의혹 책임론에 "우려 안 해"

진상조사 비공개 방침 배경 설명
친청 "정치적 책임·사법처벌" 압박
"당 자체 역량으로 제도 개선할 것"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신천지 신도의 집단 입당 의혹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자 친청계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아침 민주당 유튜브 〈민티 07〉에 나와 "(친청계가)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는 결론적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전대과정에서 당시 일부 지도부가 신천지 신도를 집단 입당시키고, 협력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대표 취임이후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은 집단입당은 물론 비밀협약 등의 증거를 찾지 못하고 사과했다.

이에 친청계 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등은 김대표를 겨냥해 정치적 책임은 물론 (허위사실공표로)사법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김 대표는 '진상 조사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며 비공개 입장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면서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일부에서)'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사진=전북도의회>

강태창 의원,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구축 토론회

강 의원 주최 민관학 전문가 참여
평화통일공감센터 필요성 제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5일 도내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를 주최한 강태창 의원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 관계속에서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특히 미래세대의 마음속에 통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기조 발제에 나선 강태창 의원은 "전북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교육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통일교육 관련 조례가 없는 도내 9개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통일 관련 체험과 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의 부재를 지적하며 통일관 및 통일플러스 센터의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상빈 전북하나센터장은 '남북하나재단 등 중앙단위 기관의 전북 이전과 통일플러스센터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은 "광주·전남에는 통일관 2곳과 통일플러스센터 1곳이 있지만 전북에는 관련 시설이 전혀 없다"며 민·관 협력형 '전북평화통일공감센터(통일관)' 구축을 주장했다.

전철후 원광대 통일교육사업단 교수는 '지역의 기억을 평화의 배움터로'를 주제로 한국전쟁의 상흔과 남북교류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지역의 통일교육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최창석(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장), 정성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조재승(전주YMCA 이사장), 김은경(전북겨레하나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전북 평화통일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강태창 의원은 "전북의 평화통일 역량을 키우고 도민이 언제나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 인프라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서겠다" 밝혔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162조3000억 원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45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한다. 그리고 64% 규모인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키로 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에 약 100조1000억원의 적자국채를 신규 발행할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빚을 얻은 뒤에 미래대응기금에 넣고 미래대응기금 중 64%인 100조원 규모를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기금 여유자금 중 30조원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하면 연간 약 1조23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도 "이재명 정부 5년 내에 국가채무가 453조 원 증가가 예상된다"며 "결국 다음 정부에 빚 폭탄을 전가시킬 것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채무를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성장을 통해서 채무를 감당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예산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미래대응 기금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이 주장한 내년도 국가예산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다.

/서울=김영묵기자



전주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복구 '속도'

화재 건축물 이달 중순까지 철거 처리 완료키로 대체시설 건축도 병행 추진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철거 사진 <사진=전주시>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화재 건축물 철거와 대체시설 건축이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지난 8월 화재가 발생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어동에 대한 철거공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화재 건축물 철거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5억)을 확보한 데 이어 조지훈 시장과 화재피해 상인들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건축물 철거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조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철거 대상은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활어동으로, 화재로 소실된 건축물과 잔해를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철거 설계 등 관련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8일부터 가림막 설치 등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철거공사는 오는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는 철거공사 기간 중 현장 출입 관리와 낙하물 예방, 분진·소음 저감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장 이용객과 인근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건물 부지에 피해 상인의 영업기반 회복을 위한 대체시설 건축도 병행 추진한다.

대체 시설 건축 총사업비는 약 19억 원 정도로,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이에 시는 올해 안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추석 명절 전까지는 대체시설 건립을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들은 지난 8월 9일 발생한 화재로 활어동이 전소하며 활어 14개소와 건어 3개소 등 총 17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시는 화재 발생 직후 재해지원본부를 신속히 설치·운영하고, 피해 상인들에게 시 재해위로금(점포당 300만 원)과 도 소상공인구호기금(점포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생계 안정을 지원했다. 또, 20개 민간단체 및 기관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한 총 9345만 원 상당의 구호 성금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최은옥 전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거공사를 진행하겠다"며 "피해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대체시설 건축 등 후속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단 조성 공정률 70% 돌파

진입도로 '팔과정로' 조기 개통 상습 정체 해소·물류망 확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전주시는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2400억 원을 투입해 65만㎡ 규모로 추진 중인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현재 성토 작업과 우·오수관로 매설 등 활발한 공사가 진행되면서 7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탄소 산업단지의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핵심인 탄소 산단 진입도로(팔과정로) 개설 사업이 연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은 당초 산단 진입도로를 고가차도로 계획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 전주시가 추가 사업비를 지원해 왕복 4차로 지하차도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시와 익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9일 해당 도로에 대한 준공 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연내 조기 개통을 앞두고 있다.

도로가 개통되면 송천동 일원과 기존 간선도로인 기린대로, 동부대로에 집중되던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상습 정체 해소하고, 효율적인 물류·교통망을 구축해 입주 기업의 편의와 산단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산단 내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기반시설 사업들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4년 용수 공급 관로 매설을 완공한데 이어 현재 공장 폐수와 생활 오수를 적정 수질로 정화·방류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축공사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 산업단지와 주거지역 간 완충 역할을 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도 병행함으로써 쾌적한 산단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및 데이터센터·방산 등 기업 유치 업종 확대를 위해 산업단지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아울러 시는 분양률 제고를 위해 2024년 6월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2025년 6월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입지보조금 추가 지원으로 기업의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강력한 투자 촉진 여건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25년 1차 분양공고를 시작으로 현재 2026년 2차 공고까지 총 21필지의 계약을 체결하며 분양률 30%에 이르고 있다.

김칠현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은 "탄소소재 국가산단 내 입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11월 전주에서 조선으로 시간여행 떠나자!

오는 7일 오목대 잔치
14일 태조어진 봉안 의례
21일 전주별시 등 3주간 진행
전주 역사문화적 가치 재조명



조선왕조의 본향 전주가 11월 한 달간 조선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의 무대로 변신한다.

전주시는 오는 7일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를 시작으로 14일 '태조어진 봉안 의례 재현'과 21일 '전주별시'에 이르기까지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조선왕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선 건국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전승행사부터 왕실의 전통 의례,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프로그램까지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마련됐다.

먼저 오는 7일에는 경기전 광장과 오목대 일원에서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가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오목대 잔치는 1380년 황산대첩에서 왜구를 물리친 이성계가 전주 오목대에서 장수들과 승리의 기쁨을 나눴다는 역사적 전승을 바탕으로 마련된 행사다.

행사에서는 황산대첩 무예 퍼포먼스를 비롯해 경기전 광장에서 태조로를 거쳐 오목대까지 이어지는 전승행렬과 창작 판소리, 개선연회 등이 펼쳐진다.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전통놀이와 증강현실(AR) 역사 체험도 마련돼 조선 건국 이전 이성계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이어 14일에는 조선왕조의 창업군주인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시는 과정을 재현하는 '태조어진 봉안 의례 재현' 행사가 펼쳐진다.

태조어진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모습을 그린 왕의 초상화로, 진본을 전주 경기전 내 어진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다.

태조어진 봉안의례는 숙종 14년(1688년)에 태조어진을 새로 모사하기 위해 경기전 태조어진을 서울로 옮겨갔다가 다시 전주에 봉안한 의례를 재현하는 행사로, 조선왕조의 의례를 보여주는 귀중한 행사로 손꼽힌다.

3주 연속 역사문화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할 21일에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전주별시'가 열린다.

전주별시는 임진왜란 이듬해인 1593년 세자 광해가 국난 극복에 필요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전주에서 시행한 특별 과거시험을 재현하는 역사문화행사다. 올해는 사생대회와 택견대회, 한시 백일장 등 다양한 경연을 비롯해 급제자 시상식인 방방례와 유가행렬 등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모습과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전주의 역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3개 행사는 조선 건국의 역사부터 왕실의 전통 의례, 선비문화까지 조선시대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차례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에 시민과 관광객이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경기전과 오목대, 전주한옥마을 등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연이은 행사를 통해 전주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고,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역사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교통사고 장애 예방 선진 교통문화 확산 '앞장'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회장 김연철)는 5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교통사고 피해 장애인,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 캠페인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겪는 당사자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신호 준수, 음주 운전 근절, 보행자 보호 등 교통안전 기본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김연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장은 "오늘 궐기대회가 교통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교통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세금 고민 해결사 '마을세무사' 운영

전문 세무사 18명 재능기부

전주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세무사 18명과 함께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국세와 지방세 관련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과 납세자 권익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 활동 중인 제6기 마을세무사 18명은 내년까지 2년간 각 동을 담당하며,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관련 사항으로, 청구세액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단, 세금 신고서 작성 대행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또는 완산구청·덕진구청 홈페이지에서 담당 마을세무사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정혜민 기자

전주 팔복동 낡은 공장을 쾌적한 일터로

중소기업 노후공장 리뉴얼 시동

노후화된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공장들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쾌적한 일터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노후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시설을 개선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것으로, 팔복동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기업당 최대 5000여만 원을 지원해 공장의 전반적인 시설과 근로·복지 환경을 새롭게 단장하도록 지원한다.

참여기업 10곳은 내년 3월까지 각 기업의 현장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시설 개선에 나서게 된다.

주요 공사 내용은 △직원 휴게공간 조성 및 흡연부스·쉼터 설치 △건물 외벽 도색 및 지붕·판넬·물받이 교체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 △주차장 정비 및 아스콘·우수관 정비 △화장실 개선 공사 등이다.

시는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시설 개선 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근로자에게는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편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무역사절단, 호주 현지 공략 본격화

호주 '멜버른 한류박람회' 참가

전주의 맛과 멋을 담은 소비재 제품들이 한류 바람을 타고 호주 소비자와 바이어 공략에 나섰다.

전주시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 8개사로 구성된 '2026 전주 K-프리미엄 소비재 호주 무역사절단'이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3일간 호주 멜버른 쇼그라운즈에서 열리는 '2026 멜버른 한류박람회(KBEE 2026)'에 참가해 수출마케팅을 펼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OTRA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1만㎡ 규모에 100여 개사가 참가하는 한류·소비재 전시회로, 기업 간 수출상담(B2B)과 소비자 대상 전시·판촉(B2C)이 함께 진행된다.

이번 사절단은 지난 8월 전북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공개 모집과 기업 역량 등 정량평가, 호주 시장성 평가를 거쳐 식품 5개사와 화장품 3개사로 꾸려졌다.

식품 분야 기업으로는 △씨엠에프엔비(천연조미료) △열한시오십분(메밀소바 밀키트·메밀현미칩) △위하다컴퍼니(조미된장·매실장아찌) △유화당(식물성유지·액상차·디저트) △전주이강주(이강주)가 참여했으며, 화장품 분야에서는 △올웰(퍼퓸 필로우미스트) △코스메티카(헤어샴푸·바디워시) △휴먼피아코스텍(기초화장품)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개막 첫날부터 사전 매칭한 현지 유망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진행하며 가격·공급 조건 등 거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이어 6일부터는 '전주 K-소비재 공동 쇼케이스관'을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이며 시장 반응을 살피고, 전주시 우수상품도 함께 전시해 전주 브랜드를 알리게 된다.

경진원은 박람회 기간 현지간담회를 열고 참여기업의 상담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시와 경진원은 귀국 이후에도 견적서 제출과 샘플 발송, 계약 협의, 수출이행 컨설팅 등 후속지원을 통해 현지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청년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나서

전주시가 1인 가구 청년들의 불균형한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시는 올해 총 8회에 걸쳐 치솟는 물가와 바쁜 일상에서 청년들이 스스로 식문화를 주도하며 온전한 자립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온담키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시가 지난 7월 배달음식이나 외식에 의존하기 쉬운 청년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집밥으로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2026 전북청년 1인가구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주요 교육과정은 △저염·저당 건강한 집밥 만들기 △저비용·고영양 식단 실습 △제철 식재료 활용 요리 레시피 공유 △청년 축제와 연계한 야외 피크닉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함께 만들고, 함께 먹는' 소셜다이닝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요리 실습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통신 3사, 2027년까지 3G 종료"

산간마을 재난경보 '먹통' 우려… 피해 대응 계획 마련해야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 종료가 본격화되면서 3G망을 이용하는 도내 마을 방송 등 재난 예·경보 시설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해 재난 발생 시 경보 전달과 주민 대피에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국내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이미 종료했으며, KT는 올해 안에 3G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SK텔레콤도 2027년 말까지 3G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027년 말이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가 모두 중단될 전망이다.

문제는 도내 곳곳에 설치된 재난 예·경보 시설 상당수가 여전히 3G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통신망이 종료되면 해당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는 2028년부터 재난 경보 전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한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하지만, 마을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인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문자만으로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와 대피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 면 단위 자연마을에서는 이장 방송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시간당 80㎜ 이상의 집중호우는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민 대부분이 잠든 시간에 재난 상황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은 사이렌과 마을 방송이 사실상 핵심이기 때문이다.

산불도 마찬가지다. 산림 인근 주민들이 재난 발생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면 대피 시기를 놓치고, 대피로까지 차단될 경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지진해일과 해일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해안가 저지대 마을과 항·포구 주민들에게 비상 사이렌과 대피 방송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경보 전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더욱이 산간과 해안 지역은 기지국이 상대적으로 적고 통신 환경도 취약한 곳이 많다. 정작 재난 대응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서 경보 전달 체계가 먼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이미 3G를 이용하는 예·경보 시설의 통신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서비스 종료가 임박하면서 통신 품질 저하와 함께 기존 장비의 유지·보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장비가 고장 나면 수리나 교체에 필요한 부품과 대체 장비 확보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9개 산과 계곡에 설치된 예·경보 시설만 파악하고 있을 뿐, 나머지 시·군에 설치된 3G 기반 시설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G 서비스 종료 일정과 관련해 일선 시·군에 공식적으로 대응을 요청하거나 장비 교체 등 후속 대책 마련을 지휘하는 행정 절차도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3G 서비스가 오는 2027년 말 종료됨에 따라 LTE(데이타통신)로 전환하기 위해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양방향 통신을 통해 통신 취약계층에 양질의 재해 예경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업에 종사하는 A씨는 "행정기관은 이동통신사의 3G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서야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하고 장비 교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이 시기에 전북에서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조직의 특성상 예산 확보와 장비 교체에만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북의 재난 예·경보 행정은 무책임한 늑장 대응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3G 서비스 종료에 따른 피해가 재난 예·경보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와 원격검침·관제장비 등 일상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각종 시설에도 3G망이 활용되고 있어 통신망 종료에 따른 연쇄적인 작동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G 휴대전화는 물론 VoLTE(HD 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일부 구형 LTE 휴대전화도 통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재난경보는 단 한 차례의 전달 실패만으로도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것이 아니라 도내 3G망 사용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통신방식 전환과 예산 확보, 장비 교체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영배 기자



<사진=농협정읍시지부>

농협정읍시지부, 농촌일손돕기 펼쳐

농업·농촌 활력 '앞장'

농협 임직원들은 5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들깨밭 멀칭필름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샘골농협(조합장 허수종)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가의 일손을 보태기 위해 들깨 수확 후 밭에 남아 있는 멀칭필름을 제거하고 주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작업 이후에는 밭에 방치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진행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김순기 지부장은 "농업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지속적인 농촌일손돕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북은행, 정원호 노조위원장 3연임

97.53% 압도적 지지 "미래 위해 노력할 것"

JB금융그룹 전북은행 정원호 제21대 노조위원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지난 4일 치러진 제22대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에서 노조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정 후보자는 찬반투표 결과 97.53%를 차지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 당선인은 제18대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한 이후 제19대 수석부위원장, 제20대, 제21대 노조위원장을 지내며 19년간의 현장경험과 노동조합에서의 풍부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직원들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정원호 노조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다시 한 번 3년간 노동조합을 이끌게 된 정 당선인은 "선거를 준비하며 몸소 느낀 조합원들의 관심과 압도적 지지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노조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켜야 할 것은 더 강하게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제대로 바꾸며, 조합원들과의 약속에 책임을 지며 모두가 행복한 전북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22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노동조합 집행부는 앞으로 JB금융지주 모회사로서 위상강화 및 현실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 강화를 비롯해, 현장 인력 부족문제 개선과 영업점 채널전략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복지제도 확대,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정 당선인은 "전북은행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지역사회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온 직원들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난 성과에 만족하기보다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며 조합원들의 권익과 전북은행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사진=군산상공회의소>

군산상의 '로보월드 박람회' 참관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용)는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된 '2026 로보월드(RobotWorld 2026)' 박람회를 회원사와 함께 단체로 참관했다.

이번 참관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제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최신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생산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자동화 기술을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회원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참관단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제조·물류 분야의 로봇 활용 사례와 자동화 설비의 작동 방식 등을 살펴봤다. 또한 기업별 업종과 생산공정의 특성을 바탕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술을 확인하고, 로봇 도입에 필요한 검토 사항과 활용 방향을 모색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신기술과 산업 변화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 전시회 참관과 실무교육 등 회원기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제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농진청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 출품작 접수

품질 분석 결과·맞춤형 기술지원 제공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제19회 목장형 자연치즈 경연대회' 출품작을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국립축산과학원과 한국목장형유가공연구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우수한 국내산 치즈를 발굴하고, 제조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산 우유로 치즈를 생산하는 낙농가, 산업체, 대학, 일반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신선치즈와 숙성치즈 중 해당 부문을 선택해 출품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에 택배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치즈는 운송 중 냉장 상태가 유지되도록 포장해야 한다.

유가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은 맛, 향, 조직감, 외관, 창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1점, 금상 2점, 은상 4점, 동상 4점 등 총 11점을 가릴 예정이다.

대상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금상에는 농촌진흥청장상, 은상과 동상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상이 주어지며, 모든 수상자에게 메달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2월 2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본원에서 열린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누리집에 대상과 금상 수상작을 소개하고 생산자 면담(인터뷰) 등을 올려 소비자 반응을 분석한 후 해당 수상자에게 전달해 향후 품질 개선에 응용토록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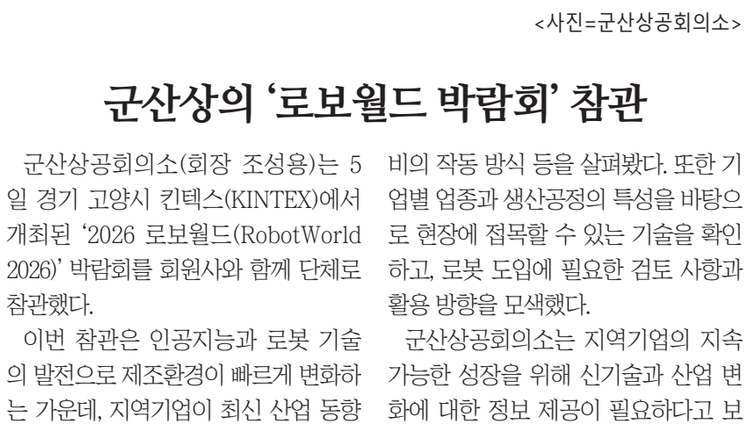
아울러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출품자에게 심사 결과와 함께 성분, 조직감, 미생물 등 출품작의 품질 분석 결과를 알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맞춤형 기술 상담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치즈 제조 실습 교육을 추진해 제품 품질 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대회 내용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강근호 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내산 치즈의 우수성을 알리고, 출품자가 제품의 강점과 개선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산 우유로 다양한 치즈를 만드는 생산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사진=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상임위원회 개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김홍식)는 5일 전북지사 3층 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본 상임위원회에 선출권한이 있는 지사대의원 중 임기만료 예정인 4명에 대해 연임을 결정했다.

김홍식 회장은 "올 한 해 상임위원들의 성원으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2027년에도 적십자의 인도주의 활동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익산 금마서 '백제도읍지 서동마' 축제 열려

햇서동마 최대 50% 할인

백제 무왕 서동의 설화가 깃든 익산시 금마면에서 지역 특산물인 서동마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첫 축제가 열린다.

익산시는 '제1회 백제도읍지 서동마 축제'가 오는 11일 오전 10시 5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일까지 이틀간 금마농협 일원에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동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익산시서동마작목회(회장 라춘주)가 주관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판매·체험·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익산 서동마는 수분이 비교적 적은 단마로, 걸쭉한 식감이 특징이다. 밥에 넣어 찌거나 전·부침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서동마를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갓 수확한 서동마와 영여자(마 씨앗)를 시중 가격보다 25~50% 저렴하게 판매하며,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부스도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마찰밥과 마국수, 마전 등 서동마를 활용한 요리의 조리 과정을 살펴보고 직접 맛볼 수 있다. 음식 시연과 시식은 점심시간을 포함해 축제 기간 상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동마 수확 체험을 비롯해 풍물·난타·댄스·클래식 공연과 노래자랑도 마련된다. 특히 금마로컬공연단과 금마라인댄스팀 등 지역 주민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해 축제에 활기를 더한다.

축제 첫날인 11일에는 농촌관광과 연계한 서동마 수확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는 오는 7일까지 선착순 120명을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농촌활력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권 익산시 농촌활력과장은 "서동의 설화가 전해지는 백제고도 금마에서 지역 특산물인 서동마를 주제로 첫 축제가 열려 뜻깊다"며 "이번 축제가 서동마의 맛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익산시>

교육청 '교육인권 보호망' 타운홀 미팅 연다

교직원 200여 명 참석 악성민원 대응·교육활동 보호 방안 집중 논의


천호성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9일 오후 3시 30분 본청 2층 강당에서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한 교육감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호성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주요 정책 안내, 교육감과 교직원 간 질의응답, 비전 선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 학교 현장의 고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주요 논의 과제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 민원 대응체계 및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관계회복지원단 운영, 교육인권 소송 교육청 책임제 및 법률 지원 강화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미팅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학생들도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 개최

7~8일 완주군서 열려



<사진=완주군>

완주군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완주향토예술문화회관과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제27회 국창 권삼득 추모 전국국악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조선 후기 판소리 명창이자 '덜렁제' 창법의 창시자로 알려진 국창 권삼득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국악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로 27회를 맞았다.

이번 국악대제전은 초등부, 중고등부, 신인부, 일반부로 나누어 경연이 진행된다. 특히 일반부는 판소리, 무용, 기악, 타악단체 등 4개 분야에서 전국의 실력파 국악인들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치열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 전야제 행사로 6일 저녁에는 완주예총과 (사)한국연극협회 완주지부가 마련한 연극 '가중호걸, 삼득이라!'가 무대에 오른다.

이 작품은 권삼득 선생의 삶과 예술혼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완주 출신 명창의 생애를 통해 판소리의 뿌리와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7일에는 예선 경연이 펼쳐지며, 8일 본선에서는 각 부문별 최종 승자를 가려 시상식이 진행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는 국창 권삼득 선생의 고향이자 판소리의 뿌리가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권삼득 선생의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권삼득 선생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국악 콘텐츠 개발을 통해 국창 권삼득의 인지도 제고와 지역 문화 발전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대 평생교육원 '늘배움갤러리' 연중 대관

수강생 누구나 개인전 단체전 개최 가능



<사진=전북대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정용준)이 수강생들의 창작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전용 전시 공간인 '늘배움갤러리'를 열고 본격적인 대관 운영에 나선다.

전북대 평생교육원은 교육원 1층에 조성된 '늘배움갤러리'를 통해 수강생들이 강좌를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지역민과 나누고 창작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에 문을 연 늘배움갤러리는 수강생들이 일상 속에서 배운 결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특히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원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전시의 주인공이 돼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선보일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토요수채'와 '전통현대서각' 강좌 수강생들도 이번 갤러리 개관에 맞춰 단체전을 열고 수준 높은 작품들을 도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대관 신청은 상시 접수하며, 수강생 개인 또는 단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전시 기간은 전시별 최대 2주까지 가능하다.

대관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와 이용 안내는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용준 평생교육원장은 "늘배움갤러리가 수강생들에게는 배움의 결실을 나누는 보람찬 공간이 되고, 도민들에게는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창작의 꿈을 펼치고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군산 개복동 골목 '미리 만나는 낭만 크리스마스'

골목 상공인·예술가 협력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진=군산시>

늦가을의 정취 속,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군산 개복동 골목길이 따스한 온기와 옛 추억의 낭만으로 가득 채워진다.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은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산시민예술촌 입구부터 국도극장으로 이어지는 개복동 골목(약 94m 구간)에서 '2026 어쩌다 예술 – 크리스마스 이이이~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거리마다 손수레 가판대에서 크리스마스카드를 고르고 이웃과 안부를 전하며 온기를 나누던 옛 크리스마스의 정겨운 풍경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점차 실내 중심의 소비문화로 바뀌어 간 현대의 크리스마스를 넘어, 길 위에서 모두가 함께 느끼던 계절의 설렘과 공동체적 유대감을 되살리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개복동 골목의 공방과 상점, 지역예술가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원도심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골목 내 참여 공방에서는 크리스마스 양말 꾸러미, 열쇠고리, 재활용 공예품, 매듭 장식품 등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과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또한 체험비와 판매 수익금의 10%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해, 방문객들이 행사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대한결핵협회의 크리스마스 씰 모금 공간에서는 옛 나눔의 정취를 되살린다. 참여자가 정성껏 만든 카드에 씰을 부착해 현장의 '미리 크리스마스 우체통'에 넣으면, 12월 크리스마스에 맞춰 카드가 전달되는 따뜻한 감성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

이를 통해 연말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목 간이무대에서는 색소폰 브라스밴드의 신나는 연주를 시작으로 현악 4중주, 현대무용, 청소년 밴드 등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린다.

아울러 전문 해설사와 함께 개복동 골목 곳곳에 담긴 역사와 이야기를 들으며 걸어보는 '개복동 골목 탐방'을 통해 원도심 골목길의 독특한 정취와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군산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어릴 적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거리에서 느끼던 설렘과 다정한 안부를 11월의 개복동 골목에서 미리 나누고자 한다"며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개복동 골목을 걸으며 나만의 카드를 써보고, 따뜻한 나눔도 실천하며 잊지 못할 낭만적인 하루를 선물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조선셰프 한상궁' 청와대 사랑채 공연 선봬

道문화관광재단-문화진흥원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은 지역문화진흥원과 협력해 4일 정오 청와대 사랑채에서 창작 댄스뮤지컬 '조선셰프 한상궁, 전주비빔밥 그 맛(味)의 완성'을 선보였다.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원이 광역문화재단 및 문화도시센터와 협력해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사랑채-찬란한 초대'에 참여해 지역 고유의 문화 이야기와 전북의 우수한 문화콘텐츠를 국민에게 소개하고자 이번 공연을 마련했다.

'조선셰프 한상궁'은 전주의 대표 음식인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로, 2023년부터 작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올해는 '전주비빔밥, 그 맛의 완성'으로 서사를 확장했다.

작품은 전주 남문장을 배경으로 개성 넘치는 인물들이 펼치는 이야기와 소리,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결합해 전주의 음식문화와 전통예술을 공연 콘텐츠로 풀어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재단은 지역문화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북의 음식문화와 전통예술을 담은 공연 콘텐츠를 도외에 소개해 지역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원인 전주비빔밥을 소재로 만든 지역브랜드 공연을 도외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이다"며, "전북의 우수한 공연 콘텐츠가 전국의 관객과 만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과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셰프 한상궁'은 '2026년 광역문화재단 대표 공연 콘텐츠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오는 2027년 2월 제주 서귀포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예술회관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정철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개관 10주년 기념 '어린이 캣츠' 선봬

군산어린이공연장은 개관 10주년을 맞아 오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4회에 걸쳐 특별공연 오리지널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 캣츠'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보름달이 뜨는 저녁, 각기 다른 소원을 가진 여섯 마리 고양이가 한 자리에 모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나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자유로운 삶을 꿈꾸는 고양이, 용기를 얻고 싶은 고양이, 아름다운 외모를 원하는 고양이 등 저마다의 바람을 가진 고양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소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개성 넘치는 고양이들의 유쾌한 에피소드와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은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약할 수 있다.

티켓 예매는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진행된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현자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군산어린이공연장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다양한 공연예술을 경험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12월까지 2026년산 공공비축미 7,523톤 매입

익산시는 오는 9일부터 21개 읍면동에서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익산시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은 총 7,523톤으로 △일반벼 4,198톤 △가루쌀벼 1,587톤 △인센티브 물량 1,738톤이다.

인센티브 물량은 수급조절용 벼 재배에 참여한 농가 등에 별도로 배정됐다.

매입 품종은 신동진, 참동진, 가루쌀(바로미2) 등 세 품종이며, 품종 검정을 통해 매입대상 외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향후 3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수확기인 10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의 평균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벼 매입 직후에는 40㎏당 6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차액은 매입대금이 결정되는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힘쓰겠다"며 "매입 현장에는 농기계와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서, 전화금융사기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포상금 수여

정읍경찰서(서장 강경남)는 지난 4일 샘골농협 북면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대상자인 샘골농협 북면지점 은행원 A씨는 최근 은행을 방문한 70대 여성 B씨가 4,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B씨는 정읍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던 상황이었다 A씨의 세심한 관찰과 신속한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으며 B씨는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은행원 A씨와 출동경찰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출동 경찰관은 보이스피싱 예방 앱 설치 등 추가 피해 예방조치도 실시했다.

강경남 서장은 "은행 창구는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예리한 관찰력과 신속한 판단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준 금융기관 직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안전관리 강화 '최선' 2(題)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익산시가 지역 내 공장과 창고 2,298개 동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조사에 나선다.

익산시는 익산소방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공장·창고 건축물의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합동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 화재에 대응해 마련된 정부의 화재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건축물의 화재 취약요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익산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익산소방서와 건축·소방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마감재료 적정성 △소방설비 및 피난시설 관리 상태 △불법 증축·용도변경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공장·창고 화재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 과제 발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개최

익산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사고 대응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익산시는 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26년 하반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과 사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에 따른 정기회의로, 화학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역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동우화인켐㈜의 화학물질 관리 현황과 비상조치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듣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사업장의 관리 현황과 비상조치계획을 바탕으로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지역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시는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을 향후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핵심사업 예산 지원 요청

이학수 시장, 국회 찾아 새만금 투자 연계 등 건의

이학수 정읍시장이 국회를 다시 찾아 지역 핵심사업 4건의 2027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지원 의원과 정태호 의원(간사), 지역구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만나 정읍시 주요사업의 추진 배경과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점 건의사업은 '피지컬 AI 로봇 밸류체인 벤처 지원사업',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농업용 배수로 구조물 현대화', '동물치유 심리안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4건이다.

이 시장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투자에 따른 협력기업 확보를 위해 '피지컬 AI 로봇 밸류체인 벤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만금 투자와 연계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동학농민혁명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도 주요 건의사업으로 설명했다. 기록유산을 보존·관리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 국회 건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 반영을 요청하는 활동을 이어가며 주요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업별 대응논리를 보강하고 국회에 건의를 이어가는 등 최종 예산 반영을 위한 후속 대응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정읍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10월 국회 방문에 이어 이번에도 주요 국회 인사들에게 지역 핵심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단 한 건의 사업이라도 더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전국적 관심 익산 여행… 이번엔 도보 관광

'풍향중' 3,000만 뷰 흥행 미륵사지 관광객 급증

유튜브 콘텐츠 '풍향중'을 통해 전국적 주목을 받은 익산시가 온라인의 뜨거운 관심을 오프라인 원도심 골목상권의 활기로 잇는 새로운 도보 관광에 나선다.

익산시는 무작정 떠나는 자동차 여행으로 화제를 모은 풍향중 영상 시리즈가 누적 조회수 3,000만 회를 넘어서며 전국적인 여행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최근 공개된 후일담 영상에서는 출연자들이 직접 익산 촬영 뒷이야기를 전하며 익산시에 각별한 감사를 전했다.

이러한 대중적 관심은 실제 방문으로 이어졌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경우 야간 미디어아트와 맞물려 9월 한 달간 입장객(22만 7,131명)이 전월 대비 74.5%나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 같은 관광 열기를 원도심으로 확장한다. 이번엔 차를 타고 외곽 명소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KTX 익산역을 거점으로 차 없이도 걸어서 도심 골목을 누비는 '친환경 도보 여행'을 새롭게 제안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가량이면 도착하는 익산역에 내린 방문객들이 걸어서 원도심의 역사와 먹거리,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도록 유도해 지역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발맞춰 이번 주말 익산역 인근 원도심에서는 외지 여행객과 시민을 맞이할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오는 7~8일 인화동 솜리마을과 중앙동 익산근대역사관 일원에서는 '제4회 보물찾기 축제-금괴를 찾아라'가 열린다. 또 7일에는 청년 거점 공간인 익산청년시청에서 '익산 디저트 페어'도 열린다. 시는 12월에도 익산역 일원에 겨울 야간 경관과 어우러진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해, 철도 이용객과 관광객의 발길을 원도심 상권으로 지속해서 이끌어 갈 계획이다.

엄은용 시 홍보담당관은 "KTX 익산역의 우수한 접근성을 살려 차 없이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원도심 도보 관광 명소를 지속해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옌타이, 녹색 저탄소 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자매결연 32년 우호 확인

군산시는 김재준 시장을 단장으로 한 공식 대표단이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옌타이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옌타이시는 1994년 11월 자매결연을 맺은 뒤 32년 동안 행정·문화·체육·경제 분야에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 왔다. 이번 방문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산업 전환이 두 도시 공통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서로의 산업을 보완하는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추진됐다.

김재준 시장은 공식 행사 본회의 도시별 발표에서 '군산시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 현황'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시장은 새만금의 태양광·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과 RE100 산업단지 추진 전략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시대 지방정부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옌타이시와 '녹색 저탄소 산업 교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도시는 녹색 제조, 순환경제, 해양 생태, 인재·정보 교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중한(옌타이)산업단지와 새만금 간의 연계는 물론 기업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표단은 화학 신소재 기업 완화화학 옌타이 산업단지와 산둥성 첫 수소장비 거점인 둥더실업 수소에너지 산업단지를 찾아 친환경 산업 현장을 살폈다. 또한 옌타이시의 도시재생 사례인 차오양가와 쒀청리대가를 둘러보며 원도심 활성화와 역사문화 자원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대표단은 옌타이에 있는 군산시 중국 사무소를 방문해 교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파견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옌타이시 관계자, (사)글로벌혁신연구원, 주칭다오 대한민국총영사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방외교 채널을 한층 더 공고히 다졌다.

김재준 시장은 "새만금의 재생에너지 역량을 바탕으로 옌타이와의 협력이 기업 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챙기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연못에 비친 가을빛, 내장산 단풍여행

우화정 주변 70% 물들어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우화정 주변에 단풍이 70% 가량 물들며 가을 정취가 짙어지고 있다.

지난 4일 기준 내장산 전체의 단풍 진행률은 30~40% 수준이다. 지점마다 단풍이 물드는 정도에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우화정 주변에서는 한층 짙어진 가을빛을 감상할 수 있다.

우화정은 연못과 정자, 주변 숲이 어우러진 내장산의 대표적인 경관 명소다. 가을이면 수면에 비친 단풍과 전통 한옥 양식의 정자가 조화를 이뤄 산책과 사진 촬영을 함께 즐기기 좋다.

방문객들은 우화정 주변을 걸으며 단풍을 감상하고, 정자와 연못을 배경으로 가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천천히 풍경을 둘러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주쯤이면 내장산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께서 가족·친구와 함께 내장산을 찾아 아름다운 단풍과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마음껏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원 이용과 교통 관련 안내는 내장산국립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대혁신' 나선다

운영혁신 5개년 계획 발표

익산시는 5일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혁신 5개년 추진계획(2026~2030)'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생산자와 소비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로컬푸드 시민이음협의체'의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시 소유 공공직매장 2곳(모현점·어양점)과 농협 내부 직매장(숍인숍) 11곳 등 총 13개 직매장의 유통 시스템을 재정비해 공공성과 경영 경쟁력을 모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시 소유 직매장은 위탁 계약 표준화와 회계·정산 기준을 엄격히 손질한다. 모현점을 위탁 운영 중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기획생산·물류·공공급식 등 운영 전반을 정밀 진단해 전문 경영 체제를 갖춘다.

농협에 들어가 있는 11개 직매장은 경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와 농가 교육, 공동마케팅 등 유기적 상생 협력을 대폭 넓힌다.

중소농과 고령농을 위한 든든한 판로 지원책도 강화한다. 전체 출하 농가의 재배 품목과 출하 예정량을 전수 조사해 계절별 수급을 조절하는 '계절생산체계'를 정착시킨다.

소비자 이용 편의도 한층 개선된다.

13개 직매장이 함께하는 제철 농산물 공동 기획전과 홍보를 확대하고, 장바구니 부담을 덜 온라인 사전주문·현장수령과 맞춤형 배송 서비스 도입도 단계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문혁 시 바이오농정국장은 "농업인은 땀 흘려 기른 농산물을 제값에 안심하고 팔고, 시민은 어느 매장을 찾더라도 신선한 먹거리를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명품 로컬푸드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불용 임대농기계 107대 공개매각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가 불용 임대농기계 45종 107대를 오는 24~25일 지역 농업인에게 우선 매각한다.

24일에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정우면 정우남로 282)에서, 25일에는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신태인읍 감곡로 42)에서 각각 매각을 진행한다.

매각 당일 해당 사업소는 임대업무를 쉬며, 센터는 농업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무 일정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임대사업소에서 사용하던 농기계 가운데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 수리비 과다 등의 사유로 불용 결정된 기계다.

매각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한다. 감정평가액을 최저 입찰가격으로 정하고, 이 금액 이상을 제시한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0일 이후 정읍시 누리집의 불용농기계 매각 공고에서 대상 기종과 수량, 참가 자격, 입찰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초선의원들, 시티투어 점검

익산시의회(의장 김충영) 초선의원들이 익산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일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제10대 의회 초선의원 중 8명이 참여한 이번 현장점검은 관광객의 시선에서 시티투어의 실제 이용 편의성과 문화해설 서비스 등을 직접 체험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초선의원들은 아가페정원,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교도소세트장 등을 비롯해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관광지에서는 현장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현장 점검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익산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시점에서 작은 불편 하나까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면서 "오늘 체감한 개선점들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익산 문화관광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

철도역 없는 고창 정읍역 거점 활용 관광 접근성 개선

고창군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손잡고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이동 편의 증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고창군은 5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 및 전국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사랑 철도여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철도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고창군과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운영 및 공동 홍보·마케팅 △철도역과 주요 관광지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 △지역 관광자원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창군은 관내 철도역이 없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해 인근 정읍역을 철도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철도 이용객들이 고창의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읍역에서 출발하는 고창 시티투어 연계 관광상품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철도여행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철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고창 관광정보 제공 및 공동 홍보·마케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읍역과 고창 주요 관광지간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연계 교통수단 및 관광안내 기능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고창군은 지역사랑 철도여행 사업의 철도운임 50% 할인 혜택과 함께, 11월 중 추가접수를 추진하는 '고창 반띵여행(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을 통해 관광객의 여행경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체류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철도 이용 관광객의 고창 방문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관광 지원사업과 연계해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은 세계유산을 비롯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철도역이 없어 관광객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철도와 지역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고창을 쉽고 편리하게 찾고 머물 수 있도록 한국철도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제1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주민대표·대책위 전문가 등 참여 첫 회의

부안군은 지난 4일 오후 3시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기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에 따른 지역갈등 해소와 주민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민의 우려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과 숙의를 거쳐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출범은 지난 4월 7일 부안군과 초고압송전철탑 백지화 부안군 대책위원회가 공론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뜻을 모은 데 따른 후속 조치이며, 부안군과 대책위는 '부안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바탕으로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부안군은 대책위와의 협의를 통해 대책위 뿐만 아니라 주민대표와 관련 전문가, 군의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군의원 2명, 대책위 추천 위원 2명,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경과가 예상되는 주산·행안·변산·상서·하서면 주민대표 각 1명, 관련 전문가 3명, 당연직 공무원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부안군수는 위촉직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공론화 의제 확정 및 위원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송전선로 건설계획과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입지선정 과정과 주민피해 우려사항 등 주요 쟁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주민들의 의견 청취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논의 과정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하고, 쟁점별 합의사항과 이견사항을 정리해 최종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본 위원회가 주민의 우려를 세심하게 살피고,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부안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역할을 맡아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형 미래 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신규 전략사업 및 추진방향 논의

김제시는 5일 '김제형 미래 신성장 사업 지원체계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전략사업과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생명과 새만금 등 김제시가 보유한 지역적 강점을 활용해 미래 성장방향을 제시하고 신규 국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경제·미래산업 6개, 농생명·새만금 11개, 관광·문화·체육 4개, 교육·복지·환경 3개, SOC·균형발전 4개 등 5대 분야 총 28개 사업이 제시됐다.

주요 발굴사업은 △피지컬 AI 기반 특수목적 모빌리티 통합 실증 생태계 조성 △국립 노지 피지컬 AI 및 자율작업 농기계 국가 실증지구 조성 △K-Seed AI 가속육종 지능형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새만금 RE100 기반 첨단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다.

국·소장 및 관계 부서장, 용역 수행기관 등이 함께 모여 발굴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재원조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실현가능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관계 부서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별 추진전략을 보완하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책사업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현서 부시장은 "이번 용역은 단순히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김제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발굴된 사업 가운데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별하고, 국책사업 반영과 국가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세계유산 경관조형물' 설치

역사·문화·자연유산 담아

고창군(군수 심덕섭)이 고창읍 주진 입로인 고창고등학교 일원에 고창의 역사와 문화·자연유산을 담은 경관조형물과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창읍을 찾는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진입 구간에 고창의 특색을 살린 상징적인 경관을 조성해, 세계유산 도시 고창의 첫인상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과 매력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총연장 145m구간에 설치된 경관조형물은 농악, 판소리,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고인돌, 병바위, 갯벌, 생물권보전지역 등 고창의 유네스코 등재·인증 자원 7가지를 형상화해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특히 조형물의 배경은 세 가지 색상의 능선형 벽체를 겹겹이 배치해 고창의 자연환경을 표현했다. 앞쪽의 갈색은 고창의 땅, 중간의 녹색은 산과 들, 뒤쪽의 하늘색은 하늘과 바다를 상징한다.

이를 통해 고창의 자연경관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고, 고창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또한 야간에는 경관조명을 통해 조형물의 입체감과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해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경관조형물은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매력을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산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고창의 역사와 문화, 자연을 살린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 염원

새마을지도자들 캠페인 참여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열기가 전북 새마을지도자들의 참여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는 5일 부안군실내체육관에서 도내 새마을지도자와 회원, 주요 내빈 등 1,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생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체의 역할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본사 유치에 대한 염원을 함께 나누며, 국가 에너지전환과 새만금의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퍼포먼스는 지난 10월 26일부터 부안군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단체 릴레이 유치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유치 활동에 전북 새마을지도자들이 뜻을 보탰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사진=부안군>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북 각지에서 부안을 찾아주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새만금 부안 유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본사 유치는 새만금의 재생에너지산업 기반을 새로운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사회단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유치 역량을 결집하고, 새만금 부안이 미래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생물테러 대비·대응 훈련

초동 대응체계 확립

김제시는 지난 4일 김제시보건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2026년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다양화되는 생물테러 감염병(탄저, 두창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해, 보건소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김제소방서, 김제경찰서, 김제시 안전재난과 및 육군 제35보병사단 화생방대대 등 총 6개 유관기관의 핵심 대응 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훈련은 이론 교육과 실전 실습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단순 참관 형식을 벗어나, 현장 초동대응요원들이 보호구를 착용하고 다중탐지키트와 검체 이송을 직접 시연하는 등 실전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기관별 공조 체계를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생물테러는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시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렸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 실무교육

업무 정확성 향상

고창군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업무처리 정확성 향상을 위해 세외수입 담당자 전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외수입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으며, 실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처리 과정을 직접 익히는 실습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강사의 진행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자체재원인 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처리가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무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관리와 세입증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소노벨 변산 식품안심구역 현판식

군 최초 식품안심구역 지정

부안군은 소노벨 변산 일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 3일 소노벨변산에서 식품안심구역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지난 9월 소노벨 변산 일원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12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됐다. 소규모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미만인 구역으로, 구역 내 영업신고 후 운영 중인 모든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한다.

이번 지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도내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변산반도의 식품안전 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부안군은 식품안심구역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관광객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소노벨 변산 일원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외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식품안전과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 6~7일 개최… 배움 결실 나눠

김제시가 평생학습도시 지정 2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한 해 학습 성과를 한자리에서 나누는 '제16회 김제시 평생학습한마당'을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시민문화체육공원 잔디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김제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김제시 평생학습관·여성회관 등 129개 기관·단체가 참여해 배움의 결실을 나눈다.

행사는 6일 오전 10시 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배움·발표·어울림의 3대 테마로 진행되며, 7일 오후 4시 30분 폐막식으로 마무리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2006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20년 동안 김제의 배움을 이끌어 온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라며 "이번 한마당이 지난 20년의 배움을 함께 축하하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김제의 새로운 20년을 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 부안읍,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4시간 운영

부안군 부안읍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을 반납하면 한 병당 1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환경을 지키면서 소액의 보상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 주민이 늘고 있다.

무인회수기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전용 앱 '백홈(BACK-HOME)'을 설치하고 핸드폰 번호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이후 회수기 현장 안내에 따라 준비해 온 투명 페트병을 투입구에 한 병씩 넣는다. 여러 병을 가져왔을 때도 한꺼번에 넣지 않고 한 병씩 차례로 투입하면 된다.

회수기는 24시간 운영돼 주민들이 각자의 생활시간에 맞춰 이용할 수 있어 평소 부안읍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근을 지날 때 집에서 모아 둔 투명 페트병을 가져와 반납하면 된다. 김병태 부안읍장은 "주민 여러분께서 편한 시간에 무인회수기를 이용하시고, 한 병당 10원의 보상도 받으면서 분리배출을 생활 속 습관으로 이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2026년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신청접수

김제시는 지역 내 생태계 우수지역인 만경강 하류, 동진강 하류 지역의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역의 산림, 하천, 농경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하고, 이에 기여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국비 1억 6천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2천만원을 투입해 만경·동진강 하류 8개 읍·면에서 보리, 밀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철새보호(먹이제공)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지역은 △만경읍 △죽산면 △부량면 △공덕면(저산, 동계, 회룡리)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8개 읍·면이고, 신청기간은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사업대상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가을철 산불 예방·대응체계 강화 2(題)

순창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초동 강화

순창군이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부터 신속한 초동진화까지 체계적 대응에 나선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군청 산림공원과와 11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재난대응단 42명과 산불감시원 58명, 공무원 진화대 100명 등 총 200명 규모의 산불 대응인력을 운영하며,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감시활동과 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과 주변 농경지 등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 발생에 대비한 초동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군은 산불 지휘차량과 진화장비 등을 상시 점검하고, 산불 발생 규모와 확산 상황에 따라 진화인력과 장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순창소방서와 순창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인명구조, 주민대피, 진화작업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감시인력의 근무를 확대하고, 읍·면별 담당 마을을 지정해 산림 인접 가구와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각 금지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소방서, 의용소방대와 산불 예방 총력

완주소방서(서장 이경승)는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완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와 함께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낙엽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선제·신속·최대·총력 대응'을 기본 방침으로 산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완주소방서는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발생 시 소방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산불 확산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완주군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지역 곳곳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화재예방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캠페인에서는 △산림 인접 지역 쓰레기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및 사용 자제 △산림 주변 불법 소각행위 근절 △산불 발견 시 신속한 119신고 등 생활 속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은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돼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경승 완주소방서장은 "선제적 예방활동과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전북교육청에 교육현안 해결 협력 요청

양충모 시장·천호성 교육감 간담
'만인재' 지원·고교 기숙사 신축 등



<사진=남원시>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지난 4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교육현안 해결과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충모 남원시장, 천호성 교육감, 강양원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남원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남원 '만인재' 온라인 학습플랫폼 운영 지원 △남원융성고·남원제일고 기숙사 신축 지원 등 주요 정책과제로 건의했다.

특히, 남원융성고와 남원제일고의 기숙사 신축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호성 교육감은 남원시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과 주요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역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교육청 및 남원교육지원청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주요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몰·전주윤슬마켓, 지역상품 판로 확대 협력

완주몰, 7일 덕진공원서 야시장
완주 기업·소상공 참여 28개 부스

완주몰이 지역 상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전주윤슬마켓과 손잡고 특별한 야시장을 선보인다. 완주몰은 7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전주 덕진공원 돌담길에서 '완주몰 × 전주윤슬마켓'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짝이는 조명과 감성적인 분위기가 어우러진 야시장으로, 전주윤슬마켓 특유의 감각적인 연출 속에 완주 지역 상품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는 자리로 꾸려진다.

저녁 시간대 덕진공원의 아름다운 야경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돌담길이 어우러지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주말 나들이 명소로,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완주의 맛과 멋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행사장은 판매 부스와 체험 부스를 포함해 총 28개 부스로 운영된다. 완주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각자의 개성과 스토리를 담은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며, 현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 할인 이벤트와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완주몰 관계자는 "이번 야시장 참여는 완주군의 우수한 제품을 새로운 소비자층에게 소개하고, 지역 상품의 판매 기회를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완주의 매력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 간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년·주민 어우러지는 '2026 중군제' 개최

인월문화제작촌 성과 나눔 행사
추수감사제·위령제로 전통 계승

남원시는 7일 인월면 중군성(일출봉 2길 4)에서 청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2026 중군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월문화제작촌'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 창작자와 지역 주민, 관계인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월문화제작촌'은 즐거운기획자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청년마을이다. 인월면 중군마을을 거점으로 청년 창작자와 기술자들이 지역에 머물며 창작·교육·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쪽 염색, 목공, 도예, 공공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레지던시와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행사에서는 청년 창작자들의 작품과 활동 기록을 전시하고, 의류·도자기·목공예품 등 다양한 생활소품을 판매한다. 젬베콜라, 해피리딤, 생기복덕 등의 음악 공연도 펼쳐지며, 청년로컬외식창업학교 교육생 등이 준비한 다양한 먹거리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나누는 추수감사제와 호국영령 위령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청년과 주민이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중군제는 청년들의 활동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근현대 기록자료 공개 구입 추진

2027년 1월까지 매도 신청 접수
입체 유물·생활사 박물류 중점

남원시가 지역아카이브 공간인 남원다움관 제2관 '남원레코드테크'의 전시 콘텐츠 확충과 역사 보존을 위해 '제9회 남원 근현대 기록자료 공개구입'을 추진한다.

'당신의 기억이 남원의 역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접수하며, 총구입 규모는 1,000만 원 정도다. 개인과 문중, 단체, 문화재 매매업자 등 남원 관련 자료 소장자라면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집 대상은 1894년부터 현재까지 남원의 역사와 삶을 보여주는 근현대 민간기록물 일체다. 특히 새롭게 조성되는 남원레코드테크의 개방형 수장고와 전시 공간에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시 활용도가 높은 입체 유물과 생활사 박물류를 중점 확보할 계획이다.

공모 주제는 기획 분야인 '춘향제'와 공통 분야인 '남원 근현대사'로 나뉜다.

매도 희망자는 남원시청 누리집(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소장품의 형태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우편, 이메일 또는 남원다움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남원다움관(063-620-56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

순창군이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12월 4일까지 '2026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수거는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과 각종 영농폐기물 등이 경작지와 마을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해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을 비롯한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영농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영농폐기물이다.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폐비닐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처리되며, 수거 과정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별로 구분해 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모종판, 점적호스 등 기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서 폐기물 배출확인증을 발급 받은 후 순창군 쓰레기위생매립장에 반입해야 하며, 해당 폐기물은 톤당 10만 원의 처리비용이 부과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류농약은 농약용기 그대로 읍·면사무소에 배출하면 집중수거기간 중 군에서 일괄 수거해 위탁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농약판매상과 농협에서 배출되는 폐농약 및 미개봉 폐농약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집중수거기간 동안 각 읍·면과 협력해 마을 안길과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이장회의와 마을 홍보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과 수거보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불법투기와 소각·매립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지도·점검도 병행해 농촌지역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대강면 송내마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선정



<사진=남원시>

남원시 대강면행정복지센터(면장 이강철)는 4일 송내마을에서 '2026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우수마을 선정을 기념하는 현판 게첨식을 진행했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이번 우수마을 선정은 산불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실천이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송내마을은 그동안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하는 등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힘써 왔다.

이강철 대강면장은 "이번 우수마을 선정은 산불 예방을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 근절과 산불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산림자원과 주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노인돌봄 종사자 역량강화·화합 한마당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개 권역 수행기관은 지난 3일 완주향토예술회관 및 완주문화체육센터에서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5개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와 후원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5개 수행기관의 1년간 사업 성과 및 후원 연계 우수 사례보고가 이어졌으며, 어르신 돌봄에 앞장선 우수 종사자 전담사회복지사 2명, 생활지원사 5명에 대한 표창 시상식이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군수상으로 조은숙, 임경숙, 윤지연, 송명숙, 이선미, 김지영이 수행했고, 군의장상은 고연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초빙강사 구민철 강사의 역량강화 및 심리 지원 교육이 펼쳐졌다.

2부에서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관 간 소통과 결속을 다지기 위한 '화합한마당'이 열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 처음으로 보조금을 확보해 5개 권역 수행기관이 뜻깊은 행사를 치를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식사·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남원시는 자살고위험군 중장년 1인 남성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음 잇는 한 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성의 높은 자살률과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프로그램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식사지원과 안부 확인을 통해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고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관리한다.

자살고위험 중장년 1인 가구 5~10명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한다. 1~4회기에는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사키트를 전달하고, 생활상태와 우울감 등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필요시 상담과 사례관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 5회기에는 참여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함께하는 한 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와 교류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약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이웃사랑기탁금 300만원 전달

순창군약사회(회장 민선홍)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순창군장애인복지관에 이웃사랑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민선홍 순창군약사회 회장(제일약국)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 300만원은 장애인의 주거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선홍 순창군약사회 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약사회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동상면, 만경강 발원지서 생활문화 행사 성료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센터장 유경태)는 지난 3일 동상면 발원샘 야외무대에서 '동상! 상상 그 이상' 문화자랑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행사는 센터 수강생들이 지난 1년간 배우고 익힌 실력과 재능을 지역 주민들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무대에는 색소폰, 통기타, 노래교실, 풍물, 한국무용, 라인댄스 등 다양한 정규강좌 수강생들이 공연을 펼쳤다.

공연 뿐 만 아니라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도예와 캘리그라피, 목공예, 뜨개공방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이며 한 해 동안의 배움의 결실을 공유했다.

또한 '한국의 멋 조명등 만들기', '소원 바람개비 만들기'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행사의 즐거움을 더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만경강의 첫 물줄기가 시작되는 발원샘에서 주민들의 열정과 재능이 어우러진 문화축제가 펼쳐져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활문화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청소년문화의 집 할로윈 파티 성료

장수군은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이 장수YMCA와 함께 개최한 '청소년문화의집 DAY! 할로윈 파티!'가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 1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적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활용한 참여형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들이 직접 꾸민 공간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이끌며 행사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행사 당일에는 미취학 아동부터 청소년, 학부모, 지역 교사까지 다양한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아 체험과 놀이를 즐겼다.

이날 청소년문화의집은 △가면 꾸미기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호러 분장 등 체험활동과 미니게임을 즐기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미디어실에 조성한 미니 '귀신의 집'과 노래연습실의 '괴담의 방'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자치활동실은 '귀신식당'으로 꾸며 타코야키와 크로플 등 먹거리 체험을 운영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기부금으로 미래세대 지원

고향사랑기금으로 통학 차량 3대 전달

총 1억 4,842만원 투입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금 지정 기부 사업 추진에 나섰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 차량 3대를 구입해 무주솔로몬, 무주행복한홈스쿨, 무주만나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총 1억 4,842만 6천 원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이동 안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돌봄 및 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노후 통학 차량 교체 수요를 반영해 연차별로 지원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지원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마련한 통학 차량이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부자들의 소중한 뜻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금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서울 캠프 운영

고향사랑기금 등 지원 청소년 문화적 소양 키워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캠프'가 6일부터 오는 7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에서 진행된다.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이번 캠프는 '2026 농촌지역 자립형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무주군 고향사랑기금이 함께 지원돼 지역 청소년들의 예술적 성장과 문화적 소양을 뒷받침한다.

이번 캠프에는 오케스트라 단원 50명과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한 지도자 12명 등 총 62명이 함께하며 6일에는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 입소해 오락과 조별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샤롯데씨어터에서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진 뮤지컬도 관람할 예정이다. 7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방문한다.

김미경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여성청소년팀장은 "이번 캠프가 단원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관심과 진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제14기 동향면 노인대학 졸업식

배움의 열정으로 38명 졸업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는 5일 동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제14기 찾아가는 동향면 노인대학' 졸업식을 개최하고, 약 3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 38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명갑 진안군의회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원, 구동수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장, 김창주 노인대학장을 비롯한 동향면 기관·단체장과 졸업생 등 70여 명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이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과정은 지난 8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13회, 32시간에 걸쳐 노후준비와 교양, 건강, 자기계발, 레크리에이션, 현장학습 등으로 운영됐다.

졸업식에서는 △진안군수상 성장경(66세)·성치문(66세) △진안군의회의장상 양옥연(75세)·성영수(86세) △진안군노인회장상 성수남(89세)·신순선(89세)이 각각 표창을 받았다. 또한, 노인대학 운영에 기여한 이강희 동향면장과 심을보 대한노인회 동향면 분회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오는 7일 은천생태 그림책도서관 개관식

진안군은 오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진안읍 은천마을 은천숲에서 '은천생태 그림책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생태마을 은천숲을 배경으로 약 150여 명의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서관 개관을 주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자연 속에서 독서문화를 접하며 책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책과 예술, 자연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갈피 만들기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숲속 전시와 산책을 통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개관식과 함께 '집에 숨어있는 좋은 그림책을 기부해 주세요!' 이벤트도 운영한다.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림책을 이웃과 나누는 행사로, 그림책을 기부한 주민에게는 멋진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들이 도서관 개관을 축하하는 데 더해 책 나눔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2027년 군정 청사진 구체화

주요업무보고회 개최 역점·공약사업 추진계획 검토

장수군이 민선 9기 군정의 구체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027년 주요 사업의 실행계획과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군청 회의실에서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이번 보고회는 각 국·실·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주요업무의 추진성과와 보완사항을 살펴보는 한편 신규시책과 주요사업, 공약사항을 포함한 내년도 업무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각 부서는 사업별 실행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사업 필요성, 예산 확보 방안, 추진 일정, 사전절차, 부서 간 협업체계 등 실제 추진에 필요한 여건도 검토했다.

특히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의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사업은 △장수 양수발전소 유치 및 관련 지역개발사업 △장수군 미래전략계획 수립 및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호남권 소방심신수련원 유치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단지 조성 육성 △장수 치유마을 조성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천천 복합레저스포츠단지 조성 △지역 통합돌봄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이다.

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별 추진 방향을 살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장수 파크골프장 조성 등 민선9기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여러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공동 대응을 강화해 공약 이행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최훈식 장수군수 주재로 '2027년 주요업무보고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사진=장수군>

장수군의회, 지방재정 안정·공공기관 전북 이전 촉구

제3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는 5일 열린 제389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 공공기관 전북 우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응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전북의 산업적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반영한 핵심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 촉구 결의안'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위해 기존 내국세 재원에서 기금 전입액을 제외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기반이 축소되어 지방재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주민 복지 증진,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를 방지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도 지속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은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다양한 특화산업과 기존 공공기관의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핵심기관 이전을 통한 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장수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전북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을 전북에 우선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의원, 공공시설 장기 유지관리 대책 촉구

한효임 의원 5분 자유발언



진안군의회 한효임 의원(사진)은 지난 5일 제31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장래 재정 부담에 대비하고, 체계적인 운영·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진안군은 군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공공시설은 준공 이후에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시설 보수 및 설비 교체 등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시설의 운영비에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비와 수선비까지 더해지면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시설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운영·수선비를 예측하고, 이를 군 전체의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 현황과 운영·관리비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관리대장 마련 △시설별 보수·교체 시기와 예상 비용을 반영한 중장기 수선계획 수립 △운영·수선계획과 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을 연계한 총괄 관리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한효임 의원은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의 재정 부담에 대비하는 일"이라며 "시설의 건립 단계부터 준공 이후의 관리와 수선까지 내다보는 행정을 통해 군민의 세금으로 세운 시설이 오랜 시간 소중한 자산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웹예능 신작 '수상한 공무원' 화제

웃음코드+군정홍보 꿀케미 본편·숏츠 누적 조회수 최단기간 100만회 육박

임실군이 배우 박량우와 실제 임실군청 공무원들이 함께 출연하는 하반기 신규 웹예능 '수상한 공무원'을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TV'와 인스타그램 등 군청SNS를 통해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상한 공무원은 임실군이 지난 달 6일 하반기 임실엔TV와 군청SNS 야심작으로 첫 선을 보인 신작으로 배우 박량우가 임실군청 뉴미디어팀 신입 공무원으로 발령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페이크 다큐 형식의 웹예능이다.

현재 본편 4화까지 공개된 11월 4일 기준, 임실엔TV를 통해 방영 중인 본편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에 함께 선보인 숏츠 2편의 누적 조회수가 벌써 100만 회에 육박하는 것을 비롯해 좋아요와 댓글들이 잇따르면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수상한 공무원은 신입 공무원으로 출연하는 배우 박량우씨의 좌충우돌 적응기와 실제 군청 공무원들이 만들어내는 현실감 있는 직장생활이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본편과 숏츠를 통해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있다.

평소 군정 홍보를 담당하는 뉴미디어팀 직원들이 주요 출연자로 나서 신입 공무원에게 업무를 알려주고, 회의와 출장, 영상촬영등 실제 직장생활에서 벌어질 법한 다양한 상황에 함께 대응하며 각자의 개성과 매력을 선보인다.

군은 이러한 관심을 시청자 참여로 이어가기 위해 오는 11월 16일까지 '수상한 공무원' 응원 댓글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하며, 선정된 100명의 참여자에게는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 자율방재단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나서

임실군 자율방재단은 지난달 30일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방재단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방재활동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방재캠프를 추진했다.

이번 방재캠프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자율방재단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고, 타 지역 자율방재단과의 교류를 통해 효율적인 방재활동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임실군 자율방재단은 부산시 금정구 소재 재난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각종 재난 상황별 안전체험 및 대응시설을 견학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익혔다.

이어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재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별 자율방재단 운영 현황과 재난 예방 활동,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 사례 등을 공유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026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구직자 150여명 현장 면접 참여

'2026년 무주군 일자리 박람회'가 5일 무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로컬잡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 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립요양병원를 비롯한 지역 내 우수 기업 10개사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 등 350여 명이 참가했다.

현장에서는 기업별 채용 면접이 진행됐으며 별도로 마련된 상담 부스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요령 등이 공유됐다.

또한 이력서 용 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생성형 AI 체험 등 면접 준비를 돕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퍼스널 컬러 진단 검사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면접에 임하는 구직자 스스로가 장점을 찾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이상형 무주군로컬잡센터장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가 현장 면접에서 채용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든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덕유산리조트 식품안심구역 조성

무주덕유산리조트가 5일 '식품안심구역' 현판을 걸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무주덕유산리조트 티롤호텔 내 일반음식점 6곳, 휴게음식점 1곳, 제과점 1곳 등 총 8곳으로, 100% 지정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민간업체가 함께 추진한다.

무주군은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위해 올해 초부터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과 협력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업소별로 위생 물품을 지원하며 위생 관리 개선을 도왔으며 지정 평가를 통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 관리와 지원을 통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의호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부안군은 지난 4일 열린 제7회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한국여성농업인 부안군연합회가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여성농업인들이 화합과 소통을 위해 모인 자리에서 지역을 위한 나눔의 뜻을 함께 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합회는 부안의 발전을 응원하고 주민들의 더 나은 일상에 보탬이 되고자 기부에 동참했다.

여성농업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지역을 위한 나눔까지 더하며 의미를 넓혔다. 회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이뤄진 이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자발적인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는 계기가 됐다.

김옥경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에서 지역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기부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힘이 되고, 부안에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장, 국무총리 표창

농촌 여성 권익 향상 공로



익산 농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어 온 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 활동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5일 박정자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장(사진)이 이날 열린 한국생활개선 전국회원대회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생활개선 익산시연합회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의 학습단체로, 농촌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는 회원들의 역량을 높이고 단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박정자 회장은 농촌 여성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생활개선회의 위상을 높이며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24년에는 전국 생활개선회원 7,000여 명이 참여한 제10회 한국생활개선 전국회원대회를 익산에 유치하고 개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익산의 농업·농촌을 전국에 알리고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도 꾸준히 앞장서 왔다. 매년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에서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활용해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겸임하며 지역 여성단체 간 협력과 화합을 이끌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과 문화활동 실시

완주시니어클럽은 지난 3일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참여 어르신 약 150명을 대상으로 전남 함평군 일대에서 문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각자의 일터에서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함평 자연생태공원과 함평엑스포공원에서 열린 국화축제를 방문해 형형색색의 국화꽃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소통하고 추억을 나누며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대권 완주시니어클럽 관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번 문화활동을 통해 즐겁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니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참여와 소득 창출은 물론, 다양한 문화·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주시새마을회, 대통령표창 등 5개 부문 수상

전북 새마을지도자대회서 5개 부문 수상 쾌거

전주시새마을회는 5일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대통령표창을 비롯해 새마을포장, 국무총리표창, 새마을중앙회장상 등 총 5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전북특별자치도새마을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송병용 전주시새마을회장이 대통령표창을, 유선영 새마을지도자전주시부녀회장이 새마을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이용운 새마을지도자호성동협의회 회장과 박정자 새마을지도자삼천2동부녀회 회장이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으며, 새마을지도자인후3동부녀회는 새마을중앙회장상을 수상해 전주시새마을회의 우수한 활동 성과와 지역사회 공헌을 인정받았다.

전주시새마을회는 그동안 '함께사는 따뜻한 세상, 전주 만들기'를 목표로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실천, 자원순환 활동, 취약계층 나눔 봉사, 어르신 효사랑 실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대학새마을동아리 및 청년 새마을연대와의 협력을 통해 청년층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가치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소민 기자



김제 공덕면 지사협 온(溫)정 한 그릇, 자장면 데이

김제시 공덕면 행정복지센터는 5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온(溫)정 한 그릇, 자장면 데이'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정성스레 준비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며 안부를 살피고, 이웃 간의 화합과 훈훈한 정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공덕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관내 어르신 및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정성껏 만든 자장면을 대접하고, 식사와 함께 일상생활의 어려움이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등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웃들과 함께 모여 자장면을 먹고 안부도 나누니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늘 잊지 않고 챙겨주는 공덕면과 협의체에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예담엔지니어링, 고창군에 1004만원 기탁

㈜예담엔지니어링이 지난 4일 고창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기탁하며 고창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전했다.

㈜예담엔지니어링은 2023년과 2024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1인당 10만원씩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해 매년 약 150만 원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특히 2024년에는 상하 아름다운 마을 조성을 위해 1,200만원 상당의 설비를 기탁하는 등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기업 차원의 나눔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1,004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금액을 기탁하며 2년 연속 '천사 기부'를 실천했다. 매년 변함없이 이어지는 나눔은 고창을 향한 각별한 애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원진알미늄, 장수군에 라면 50박스 전달

장수군은 ㈜원진알미늄이 군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라면 50박스를 기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탁은 연말을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장수군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하기 위해 이뤄졌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원진알미늄은 알루미늄 창호와 전기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비롯해 이웃돕기 성금과 물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원태연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 용담면, 고독사 예방 위한 '찾아가는 아로마테라피' 운영

진안군 용담면이 고독사 위험군과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독거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생활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아로마테라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담면은 지난 11월 2일과 3일, 양일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군 5명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아로마테라피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려 외부활동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해 가정에서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아로마 오일의 향을 맡으며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경험하고, 향기로운 물비누와 통증 완화 파스 등 아로마 제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전길빈 기자



〈一事一言〉



전북대의 글로벌 쾌거, 이제 '지·산·학 생태계' 완성으로 응답할 때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QS 아시아대학평가 5년 연속 거점국립대 3위 성과에 박수 보내며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지방 대학들에게 생존을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로 다가오고 있다.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지금, 지역의 거점국립대학교가 전해온 낭보는 가뭄 끝의 단비처럼 반갑고 값지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7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 전북대학교가 5년 연속 거점국립대학 3위를 수성했다는 소식은 전북 지역사회 전체가 다 함께 축하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쾌거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는 종합점수 65.5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점 상승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연구 생산성, 교육여건, 국제화 지표 등 11개 평가 항목 중 8개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장을 보인 것은 대학 구성원 모두가 끊임없는 혁신과 연구 몰입을 통해 일궈낸 결실이다. 글로벌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상위권 지위를 공고히 유지하며 학술적 역량을 입증해 온 전북대의 행보는 지방 대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자존심을 지켜낸 훌륭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밋빛 성과 뒤에 놓인 현실의 과제 또한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해외 대학 평가 순위와 우수한 논문 실적을 거둔다 한들, 그 학술적 성과가 대학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변화의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 산업 현장이 고숙련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역설적 구조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쾌거의 의미는 반감되고 만다.

학술 우수 역량 지역 선순환하는 지산학 상생모델 구축이 시급하다

이제 전북대가 거둔 글로벌 경쟁력을 동력 삼아, 거점대학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기업이 하나로 묶이는 '지·산·학(地·産·學) 생태계'의 완성으로 이어가야 한다.

대학의 우수한 연구 성과와 핵심 기술이 도내 농생명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첨단 모빌리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전략 산업체로 활발히 이전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선순환의 고리를 단단히 매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일선 시·군 역시 대학의 성과를 단순한 남의 집 경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폭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대학이 배출한 인재들이 지역에 안착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산·학 협력 연구개발(R&D) 예산을 파격적으로 편성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전북타임스는 지역 발전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혁신을 이끌어온 전북대의 빛나는 도약을 80%의 뜨거운 성원으로 응원한다. 동시에 대학의 연구 성과와 인프라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들의 미래로 온전히 연결되는지 20%의 날카로운 감시와 제언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전북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로 도약함과 동시에, 전북의 밝은 내일을 개척하는 지·산·학 상생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사 설

재난경보마저 끊기나… 전북도, 3G 종료 대책 서둘러야

이동통신 3사의 3G 서비스 종료가 가시화하고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농산어촌과 산간·해안 지역의 마을 방송 등 재난 예·경보 시설에 3G망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대체 통신망 전환과 장비 교체 준비가 미흡하다. 통신망이 끊긴 뒤에야 대책을 마련한다면 주민 안전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3G 서비스를 종료했고, KT와 SK텔레콤도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도는 일부 지역의 시설만 파악했을 뿐 시·군 전체의 3G 기반 재난시설 현황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료 일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수조사조차 늦어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농촌 마을 방송은 단순한 안내 수단이 아니다. 집중호우와 산불 등 긴급 상황에서 주민에게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하는 생명선이다. 특히 고령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난문자만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를 기대하기 어렵다. 야간이나 통신 취약지역일수록 마을 방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속한 실태 파악과 실행계획이다. 전북도는 모든 시·군의 3G 기반 예·경보 시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도에 따라 교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LTE 등 대체망 전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설치와 작동 점검까지 일정별로 관리해야 한다. 시·군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통합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장치와 원격 관제시설 등 다른 안전 설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재난경보는 단 한 번의 전달 실패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북도는 통신망 종료를 단순한 기술 변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더 이상의 지체는 없어야 한다.

▲오늘의 시

사람의 가을 / 문정희

나의 신은 나입니다.
이 가을날
내가 가진 모든 언어로
내가 나의 신입니다
별과 별 사이
너와 나 사이 가을이 왔습니다
맨 처음 신이 가지고 온 검으로
자르고 잘라서
모든 것은 홀로 빛납니다
저 낱낱이 하나인 잎들
저 자유로이 홀로 인 새들
저 잎과 저 새를
언어로 옮기는 일이
시를 쓰는 일이,
이 가을
산을 옮기는 일만큼 힘이 듭니다
저 하나로 완성입니다
새, 별, 꽃, 잎, 산, 옷, 밥, 집, 땅, 피, 몸, 물, 불, 꿈, 섬
그리고 너, 나
이미 한편의 시입니다
비로소 내가 나의 신입니다. 이 가을날

시인 약력 : 1947년 전남 보성 출생. 동국대 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69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돼 등단했다.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시집으로 '문정희 시집', '새떼', '찔레', '하늘보다 먼 곳에 매인 그네', 수필집 '지상에 머무는 동안' 등을 출간했다. '공초문학상' '목월문학상' '월간문학 신인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 독자투고 |

붉게 물든 단풍 뒤에 숨은 불씨, 가을 산의 안전을 위협한다



가을이 깊어가면 전국 산야는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고, 서늘한 바람은 사람들의 발길을 야외로 이끈다. 주말마다 이름난 명산과 지역 축제장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인다. 시민들에게는 더없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제복을 입은 우리 경찰관들에게 가을은 일 년 중 가장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하는 시기다. 알록달록한 단풍 너머로 대형 산불이라는 재난의 위협이 소리 없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을철 산은 산불에 매우 취약한 환경으로 변한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짝 마른 낙엽이 쌓인 상태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강한 바람을 타면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대형 화재로 돌변한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가을철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한 번 발생한 산불은 소중한 산림 자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이 된다.

경찰은 가을철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지자체,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점은 최첨단 장비와 수많은 인력보다 더 강력한 산불 예방의 열쇠는 산을 찾는 시민들의 '작은 주의'라는 사실이다.

산행 시 라이터나 버너 등 화기 소지를 자제하는 것은 기본이다. 지정된 등산로만을 이용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는 절제, 그리고 담배꽁초 하나도 무심코 버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 한 사람의 방심이 수십 년간 가꿔온 푸른 숲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지만, 모두의 작은 관심은 거대한 재난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된다.

가을 산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아름다운 풍경은 자연이 준 축복이자 우리가 후세에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올가을 붉게 물든 단풍의 아름다움 속에서 '화재 예방'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기를 당부한다. 경찰 역시 언제나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가을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산길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경비안보계
순경 이강민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1월 6일 금요일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 민선9기 실행 본격화

출범 100일 맞아 5대 분야 50개 공약 구체화
국립의전원·기업유치 등 미래 성장기반 강화



남원시가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앞으로 4년간 추진할 5대 분야 50개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남원시는 지난 100일간 성급한 신규 사업 발표 대신, 지역 현안을 세밀히 재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시민 목소리를 수렴하는 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남원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실행계획을 촘촘히 다듬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 결과 시는 민선9기 비전인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을 중심으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경제도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도시 △사람이 모이는 인구도시 △전통과 K-컬처를 선도하는 문화도시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등 5대 시정목표를 세우고 50개 공약을 구체화했다.

기업과 일자리, 농생명산업, 교육과 인구, 문화·관광, 의료·복지 등 남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인 사업과 계획으로 담았다. 〈편집자 주〉

 # 시민의 목소리에서 시작한 100일…남원의 과제를 다시 살피다

남원시는 출범 초기부터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점검하여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시정의 방향을 구체화했다. 선거공약과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부서별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실·국·소 토론회를 통해 공약 목표와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주요 사업 현장도 직접 살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부터 주요 현안사업 현장까지 찾아 사업 추진상황과 필요한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시민과 전문가가 공약을 직접 살펴보는 과정도 거쳤다. 35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남원발전연구소 정책운영위원회 전문가 자문과 부서별 검토 등을 거쳐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추진계획을 구체화했다.

시는 이 같은 과정을 바탕으로 민선9기 공약을 5대 분야 50개 사업으로 확정했다. 시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사업과 일정으로 연결해 앞으로 4년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오랜 현안에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국립의전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설립 본격화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앞두고, 남원의 수십 년 숙원 사업인 공공의료 혁신 과제들이 마침내 거대한 변곡점을 맞았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일 국립의전원의 남원 설립과 함께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인 국립의전원은 매년 100명의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을 민선9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개교를 위한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해 남원이 공공의료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 전환을 통해 국립의전원의 교육과 임상·실습을 뒷받침할 기반도 함께 마련된다. 정부 계획에 따라 현재 248병상을 단계적으로 500병상까지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과 치매 등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과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국립의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을 연계해 교육과 임상·실습이 지역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도시…산업 기반을 바꾼다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산업 기반 확충도 민선9기 핵심 과제다.

시는 AI 첨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 기업과 스마트물류센터 등을 유치 하여 이를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 유치와 함께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사매산업단지와 남원2변전소 구축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를 보강해 기업이 투자하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만들어 간다.

또한 남원의 강점인 농업도 미래산업으로 전환한다. 스마트농업을 중심으로 생산·교육·창업·유통 기능을 연계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실습장, 종합커뮤니티센터, 창업단지, 통합물류 기반 등을 구축해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참여와 소통의 폭 넓힌다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소통의 방식도 바꾼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정책을 제안하고 주요 현안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시민동행 플랫폼'을 도입한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은 시민참여단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다. 논의 결과와 실행과정도 공개해 시민의 제안이 정책 결정과 실행으로 이어지는 참여형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과 인구정책에도 변화를 추진한다.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지역의 새로운 교육 기반으로 육성하고, 지역 내 학교를 연계한 IB 교육벨트를 구축해 교육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현재 2개 월드스쿨을 기반으로 IB 인증학교를 최대 5개소까지 확대해 지역에서도 경쟁력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청년과 가족이 남원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함께 만들어간다. 교육과 주거, 일자리, 생활환경을 연계해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국악과 지리산, 남원만의 강점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민선 9기에서는 남원만이 가진 문화와 자연자원의 가치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한다. 국악의 전통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과 공연,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국악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권에서는 산림치유원 조성과 생태관광 탐방로 개선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함파우 예술특화지구를 비롯한 주요 문화·관광사업도 연계해 남원의 전통문화와 자연, 예술을 새로운 관광 경쟁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 의료와 돌봄은 더 가까이…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공약 추진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복지·보건 정책도 추진한다. AI·디지털 헬스 기반의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해 필요한 서비스를 시민 가까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년, 어르신 등 필요한 지원을 살피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 50개 공약의 출발점은 시민…약속을 실행으로

5대 분야 50개 공약은 분야와 사업은 다르지만 출발점과 지향점은 같다. 시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남원의 변화를 시민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시는 공약 확정에 그치지 않고 사업별 목표와 추진일정, 재원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지난 100일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남원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계획을 하나씩 실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국립의전원 설립을 비롯해 기업과 일자리, 농생명산업, 교육, 문화·관광, 의료·돌봄 등 남원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필요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도시 남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